

## 하이록코리아 중식보고대회 열고 투쟁 결의 다져 사업장은 달라도 자본의 이윤추구는 같아



지난 26일(목) 12시 30분경 하이록코리아분회 조합원이 사내 주차장에 모여 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를 모았다. 이날 중식보고대회는 교섭경과보고 교섭대표 투쟁발언 실천결의로 진행됐다. 신예준 분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교섭이 진행되며 의견접근을 한 내용도 있지만, 핵심 조항들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다 "며" 여기서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로 간다면 49년을 바꿀 수 있다 "고 조합원 단결을 독려했다. 경과보고에 이어 박해진 수석부지부장 교섭대표가 투쟁발언을 했다. 박해진 교섭대표는 "수숫대 한 개는 힘없이 부러집니다. 그러나 한 개 한 개가 모여 수백

개가 되면 아무리 힘을 주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며"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단결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고 단결을 호소했다.

중식보고대회 끝은 단체협약 쟁취하자는 구호가 담긴 리본을 달며 보고대회 마지막을 향했다. 조합원들은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며 투쟁 승리 그날까지 리본을 패용하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조합원들은 리본을 패용하고 금속노조가를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부르며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날, 조합은 오전에 회사에 수정안도 전달을 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해 회사가 답을 해야 한다.



## 20일, 반도체 사업장 리노공업 지회 설치

### 최우선 과제는 민주적 노동현장 만드는 것... 돈보다 인간답게

부산 반도체 공장에서도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다. 지난 20일 수개월의 준비 끝에 리노공업이 설치 총회를 진행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노공업 노동조합 설치 이유는 소박하다. 비민주적으

로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것. 더는 강요되는 노동강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려를 현실로 느낀 노동자 절규. 사실 법 추진과 무관하게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노동권을 침해했던 것이 확인된

것. 리노공업에 노동조합 설치 현실이 됐고 이제 교섭과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 안정화 과제만 남았다. 리노공업 설치 총회를 거치고 선출된 간부는 꿈을 향한 열정이 넘치고 있다. 그 열정의 지속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지회 분회의 몫.



# 한국지엠 원청에 맞서!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다

기사확인



[현장은 지금]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금속노조는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켰고, 지회 조합원 중 이탈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덕분에 저희 다시 출근했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가 2월 11일 현장으로 돌아갔다. 복귀 소식을 전하는 김용태 지회장 목소리는 한껏 들뜨면서도 긴장감이 묻어났다. 집단해고와 현장 복귀, 지엠부품물류지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지엠은 20년 넘게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고용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바꿔보겠다며 지난해 7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한국지엠은 고용승계 관행을 스스로 깬다.

한국지엠은 기존 하청업체(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업체는 11월 28일 노동자 120명 전원에게 폐업과 해고 예고를 알렸다. 한국지엠 원청도, 바뀐 업체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에 손사래를 쳤다.

지회는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12월 4일 ‘지엠부품물류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한국지엠과 우진물류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했다.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동자들 억울한 사정을 알렸다. 노동부 장관도 만났다.

[기사 내용 전체 금속노동자](#)



## 양산 물금 소재, 제이스 지회 설치 총회 열려 회사 인사 전횡 이제 딱 그만 상견례 요구 등 본격 교섭 절차 진행할 것

지난 25일 양산 물금 소재 (주)제이스 사업장에 지회가 설치됐다. 회사는 ISO 탱크 컨테이너 서비스업. 지회가 설치된 이유는 대표이사 갑질과 부당 전환배치 부당해고 등 비민주적 회사 운영 때문.

신규 설치 지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 가족과 함께하는 봄나드리 트레킹

2026년 4월 11일 (토) 10:30  
태종대 입구(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29-1)  
식사 장소 : 태종사 맞은편 운동장  
참가 기념품 : 양우산 / OX퀴즈 경품 추첨